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12월

선교편지 제 11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침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12월 대강절 첫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 익핏예일교회와 각 학원사역의 일정을 고려하여 바카카 교회의 성탄축하예배는 부득이 12월 첫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카카 교회에 속한 약 50여명의 어린이들은 지난 11월초부터 열심히 성탄축하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성탄 캐롤은 물론이고, 바카카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성경 암송도 나이 별로 구분 하여 많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난 것은, 성탄축하예배 이후에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이 제외될까 염려한 부모의 열기도 대단합니다.

마침내 깨끗하게 옷을 차려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날 따라 더 좁게 보이는 바카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에 들어 오지 못한 동네 사람들과 이슬람 아이들도 교회 창문에 매달려 많은 호기심으로 성탄축하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아기 예수 탄생함을 축하하는 캐롤과 율동, 그리고 성경 암송등을 부모님의 많은 박수를 받으며 기쁨으로 잘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준비한 성탄 선물을 먼저 주어 퇴장(?) 시키고, 아이들만의 선물과 게임,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간식을 먹고, 마침내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바카카 교회를 통하여 이곳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부쩍 자란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많이 자랐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를 방문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이어서 오래전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학교장의 잦은 전근과 학교 방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역이 지속되지 못한 '띠구만 초등학교' 입니다. 사역 초기에 2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금까지 그들의 부모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전부 였는데, 학교장이 간곡하게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학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가 진행하는 아팔라야 고등학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디고스 교육부를 통하여 듣고, 띠구만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을 위하여 같은 사역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 사역을 시작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새롭게 띠구만 초등학교의 35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약 50여명 정도로 어린이들을 나누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사역은 주로 토요일에만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갑자기 금요일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사역자들이 악기, 프로젝터, 간식을 준비해서 오전에는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띠구만 초등학교에서 학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연약하지만 디고스예일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학원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별기가 바쁜 삶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자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뿐만 아니라, 이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디고스예일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 67: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정식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두 시간을 채플 시간으로 배정 받아 찬양과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디고스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원 사역을 감당해 왔었지만, 이번처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내에서 가장 쾌적한 교실을 배정 받았습니다. 마이크와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도 공급 해주고, 선풍기도 2대씩이나 설치해 주고, 책걸상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만 배치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원할하게 참석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학생들의 복음화에 대한 학교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열어 주신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기도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 명의 현지 사역자와 함께 수고를 했었는데, 디고스 예일 교회 교사 가운데 금요일에 참여가 가능한 2명이 더 증원되어 저와 함께 모두 6명이 다양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간식을 나누며 친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요청으로 많은 관심 가운데 학

생들에게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아팔라야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 교육 과정으로 디고스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에 등록하여,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팔라야 고등학교의 토요일 제자 훈련도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비록 20여명의 소수 인원이지만, 본인이 자원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고, 더 귀해 보입니다. 금요일 채플 시간보다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마치 하나님이 아팔라야 지역을 향해 계획하시는 믿음의 씨앗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진학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여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제자 훈련에 속한 학생들을 디고스 예일 교회로 초대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 입니다. 학교 근처에서 트라이시클을 빌려 타고 마치 소풍을 가듯이 30여분을 지나 디고스 예일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신기한듯 교회 이곳 저곳을 둘러 본 다음에,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학생들을 바라 보시며, 얼마나 기뻐 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팔라야 지역에 '교회'를 찾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으시는 주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아팔라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팔라야 지역에 세워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교회의 부흥과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